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 ✓ 현대상선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건조계약이 맺어짐
- ✓ 따라서 조선사별로 수주 목표 달성을 높이게 됨
- ✓ 최근 상선 시황 호조로 연말까지 수주 목표 달성 가능할 것

Issue Comment

현대상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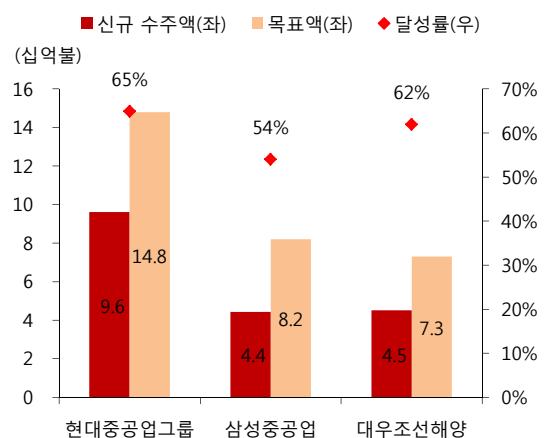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현대상선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물량이 지난 28 일 각 조선사와 현대상선이 건조계약을 맺음으로써 확정되었다. 현대중공업에게는 15,000TEU 8 척(9 억 1,200 만불), 삼성중공업에게는 23,000TEU 5 척(7 억 3 천만불), 대우조선해양에게는 23,000TEU 7 척(1 조 2,200 만불)을 각각 발주했다.

2018년 국내 조선사들은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하고 Chevron 의 Rosebank 입찰경쟁에서 일찌감치 탈락하며 해양플랜트 수주가 전무해지면서 상선 쪽에서의 수주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수주로 수주 목표 달성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8월 말 기준 2018년 신규 수주분에 금번 수주분을 더하면 현대중공업그룹(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합산)은 65%, 삼성중공업은 54%, 대우조선해양은 62%의 달성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들어서 미국發 화학 제품 공급 증대로 Feeder 컨테이너선, MR 탱커 발주가 많은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의 LNG 수요가 증가하며 LNG 캐리어 발주 기대감도 불거지고 있어 연말까지 조선사별로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대상선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개요

	스펙(TEU)	척수(척)	금액(백만불)
현대중공업	15,000	8	912
삼성중공업	23,000	5	730
대우조선해양	23,000	7	1,022

조선사별 수주 목표 달성을(8월 말 기준에 본 수주 합산)



자료 : 현대상선 SK증권

자료 : 각 사, SK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